

완도군, 지방소멸 대응 교육발전특구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 가져 돌봄부터 취업까지 연계 교육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등

완도군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돌봄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는 지역 교육발전 특구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 협의체와 업무 협약 및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업무 협약식은 신우철 완도군수, 김정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 황우선 완도수산고 교장, 박희연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수미 ㈜이노플렉스 대표 등을 비롯한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협약 기관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 마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교육 발전 전략 수립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완도군 교육발전 특구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 회도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완도형 교육 발전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를 진행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를 청취한 후 추진 사항 검토와 최종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우철 군수는 “저출생 및 우수 인재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소멸의 시대에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 협의체와 업무 협약 및 용역 중간 보고회가 지난 8일 완도군청에서 열렸다. 완도군 제공

“지역 협의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완도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중간 보고회에서 수립된 내용을 수정·보완해 오는 6월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잡은 강우 농작물 관리 당부 해남군, 현장지도반 운영 등

해남군은 최근 잦은 강우로 월동작물과 고추 등 정식기 주요 농작물 성장장애와 병해충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이달 중순까지 중점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맥류의 경우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해 붉은곰팡이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등록된 약제의 주기적 살포를 통한 예방과 수확 전까지 물빠짐 관리가 필요하다.

붉은곰팡이병 감염 시 치료가 어려우며 독소로 인해 섭취가 안 되므로 전량 폐기로 이어져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마늘 잎마름병, 양파 노균병은 발병시 수확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발병 포장은 서로 다른 계통의 약제를 7~10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강우 시에는 고랑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도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고추는 천근성 작물로 습해에 약하므로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후 터널 내부 환기 및 병해충 예방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바다 식목일 ‘잘피 심기’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 활동도

완도군은 바다 식목일(5월10일)을 맞아 지난 9일 신지면 동고리 일대에서 잘피 심기 및 바다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하고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완도군,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관계자와 신지면 동고리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군은 지난 4월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탄소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2027년까지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해조류, 해초류(잘피) 등을 이식해 1.59km²의 복합 숲(‘효성 바다 숲’)을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블루카본 소재인 잘피 2000주를 참석자들이 직접 만들어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이식하고 인근 해역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 활동도 전개했다.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바다 생태계 보호와 풍요로운 연안 바다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지난 9일 완도군이 바다식목일을 맞아 신지면 동고리 일원에서 잘피 심기 활동을 펼쳤다. 완도군 제공

신안 압해읍서 ‘공동교육과정 도시락(島視樂) 한마당’ 성황

창조문화 교육 실현 목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신안 교육가족의 건강과 단결을 도모하고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락 한마당이 열렸다.

13일 신안교육지원청, 신안군청,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압해공설운동장에서 관내 초·중학생, 교직원, 학부모·지역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안 공동교육과정 도시락(島視樂) 한마당’이 열렸다.

도시락 한마당은 ‘섬을 보면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창조미래교육, 연대교육공동체, 신뢰행정, 공부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달리기, 훌라우프



13일 압해공설운동장에서 관내 초·중학생, 교직원, 학부모·지역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안 공동교육과정 도시락(島視樂) 한마당’이 열렸다.

게임, 권역별 단체경기·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다.

별도로 운영된 진로, 수학, 다문화, 마을 학교, 내교향 학교 보내기, 신안경찰·소방서 등 6개 부스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검사, 마을학교체험, 하의·안좌·도초고 등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현재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용이 300여만원을 편성해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탄탄한 지원책으로 섬 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신안홍일갑 기자



목포시, 달산수원지 환경정화 시민 대표 휴식공간 관리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직원 30여 명은 지난 11일 달산수원지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 및 다가오는 하절기를 맞아 달산수원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낙엽 및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산림욕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물에 쌓인 먼지 닦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여 달산수원지가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 해양치유센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가 한국관광공사의 ‘2024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돼 지난 10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시설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신규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완

도 해양치유센터 비롯해 13개소가 선정됐으며 전남도에서는 완도만 이름을 올렸다.

이에 군은 지난 4월24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사유원에서 열린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기념행사’에 전남 대표로 참석해 현판 수여 및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은 웰니스 콘

텐츠 적정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웰니스의 거점 시설인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웰니스 관광 기반을 다져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내달 28일까지 철새 기획 전시전 신안새공예박물관서

신안군은 국제적인 철새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조성된 새공예박물관에서 오는 7월28일까지 ‘나무가 들려주는 철새이야기’를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의 최서남단에 있는 신안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길목으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며 이동 중 지친 체력 보충을 위해 쉬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내에 기록된 조류 600여 종 중 국내 최대인 420여 종이 흑산도 권역에서 관찰될 정도로 명실상부 철새들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국가 간 이동하는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조류)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해 지난 2021년 8월 새공예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번 기획전 주제는 ‘나무가 들려주는 철새이야기’로 사람과 가장 친숙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로 제작된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한다.

기획전에는 일본, 스위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20개국에서 수집된 공예품 130여 점을 비롯해 국내 작가가 제작한 수공예품 20여 점 등 150여 점이 전시된다.

국내 작품 중 예로부터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진 솟대 공예품이 첫선을 보인다.

신안새공예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예품은 10여 년 전부터 신안군청 직원들이 국내·외에서 직접 수집한 작품으로 30개국 1200여 점에 달한다.

그 중 500여 점을 선별해 새공예박물관에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외부에 조성된 새조각공원에는 소나 조각 100여 점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